

이야기꽃 그림책 신문

제2호 - 《조랑말과 나》 편

펴낸 날 2019년 3월 4일 펴낸 곳 이야기꽃출판사 · 서울 마포구 연남로13길 17 전화 070-8797-1656 전송 02-6499-1657 이메일 iyagikot@naver.com 홈페이지 www.iyagikot.com



나에게는 조랑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가다 보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망가진 조랑말을 일으켜 세워
다시 여행을 떠나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깨어져도, 나와 내 조랑말은

넘어지고 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 나의 꿈



홍그림 글·그림 | 값 12000원

한 아이가 조랑말을 키웁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세상에 조금씩 눈떠 가면서 키워 온, 아니, 함께 자라 온 조랑말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되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조랑말. 아이는 그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

려 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시냇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랑말과 함께라면 아이는 즐겁습니다. 파란 하늘에 새들이 날고, 들판엔 꽃도 피어 있습니다. 아이의 여행은 순조로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 사는 게 그런가요? 언제 어디서 뜻밖의 고난과 마주칠지 모르는 것이 여행길. 아니나 다를까, 웬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고는 아이의 조랑말을 향해 뽕! 하고 충을 쏩니다.

조랑말은 조각나고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아이의 포기하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조각난 조랑말을 꿰매고 이어 붙인 아이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가다 보면 캄캄한 밤길도 지나가게 됩니다. 밤이라 해서 고난까지 잠자지는 않는 법. 또 다른 모습의 ‘이상한 녀석’이 아이 앞에 나타납니다. 펑! 광선충을 쏘아 조랑말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망가진 조랑말을 꿰매고 이어 붙여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길고 긴 여행에 어찌 평범한 길만 있을까요? 아이는 물속 길도 지나고 묘지 길도 지납니다. 마주치는 ‘이상한 녀석’도 가지가지일 테지요. 커다란 악어가 나타나 콕! 조랑말을 박살내고, 해골바가지 유령이 나타나 쉬리릭! 조랑말을 흘뜨려 버립니다.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살난 조랑말도, 흩어진 조랑말도, 정성스레 추슬러 꿰매고 이어 붙입니다. 그때마다 조랑말의 몸뚱이에는 꿰매고 붙이고 싸 맨 흔적이 늘어나지만, 아이처럼 조랑말 또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서, 이제 아이와 함께 똑바로 일어섭니다. 줄곧 아이 뒤를 따르던 조랑말이 이제 아이를 앞서기도 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기도 합니다.

아이의 상처투성이 조랑말과 함께 걸으며 곳곳하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조랑말은.” 조랑말과 함께 가는 아이에게, 고난은 좌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극복할 시련일 뿐이지요. 그런 아이의 뒤에서,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던 ‘이상한 녀석’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요. 아이와 조랑말은 그렇게 곳곳이 걸어갑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딘지, 거기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그림책을 만든 작가는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누구나, 가슴속에 조랑말 한 마리 키우게 되길. 아니, 조랑말이든 얼룩말이든 기린이든 거북이든……, 넘어지고 깨어져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좀비 같은 꿈 한 마리.

영감님과 토끼들이 펼치는 티격태격 췌 다툼

애기줄치그림책02. 녹두영감과 토끼

영감님이 뒷산 밭에 녹두를 심었어요. 토끼들이 날마다 와서 녹두를 따 먹네요. “이놈들! 내 녹두 따 먹지 마래이~!” 티격태격 왈자지껄, 다툼이 일어났어요. 녹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한바탕 췌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녹두영감과 토끼

강미애 옛이야기그림책 | 값 16500원

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 지원사업 선정작

*이야기꽃 애기줄치그림책은 옛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작가, 독자, 평론가의

3인 3색 책 이야기

작가는 책을 만들고 독자는 책을 감상하고 평론가는 책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한 권의 책이 저마다의 처지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게 되지요. 똑같은 책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읽어 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책을 보지만 똑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달리 읽는 것은 무엇이고 같게 느끼는 건 어떤 걸까요? 여기 작가와 독자와 평론가, 세 사람의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처지에서, 같게 또 다르게 말하는 《조랑말과 나》를 만나 보세요.

작가의 책 이야기_ 홍그림 작가 인터뷰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그림책 작가가 되기 전엔 어떤 일을 했나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에 진학해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졸업 후에는 게임 회사에 취직해 게임일러스트를 그렸지요. 그런데 화려하고 조금은 자극적이기도 한 게임일러스트는 적성에 맞질 않았지요. 퇴사를 하여 출판사의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위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장르는 계속 달라졌지만 어찌 됐건 그림을 그리며 지냈어요.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처음에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이 엄마가 어느 날 파주출판도시에 놀러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그림책을 한 권 선물해주셨

지요. 볼프 에를브루흐의 《내가 함께 있을게》였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작품이었지요. 그 책을 보고 그림책은 단순히 아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그 뒤로 여러 그림책을 접하며 세상에 정말 재밌고 멋진 그림책이 많다는 걸 느꼈고, 저도 작게나마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랑말과 나》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일러스트레이션학교 힐스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을 공부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권의 그림책을 창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조랑말과 나》는 거기에 참여하여 만든 제 첫 그림책입니다. 이 책의 출발은 대학시절에 만든 《My Pony》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림책 《조랑말과 나》 초반부의 내용이 글 없이 되풀이되는 상당히 과격하고 엽기적인 이야기였지요. 당시 프로그램 지도교수께서 그 작품을 보고 헛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이 들어 있다며 그림책으로 발전시켜 보자고 했어요.

책을 만들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My Pony》가 그대로 그림책으로 옮길 수는 없는 작품이라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장 애를 먹었던 건 주인공 캐릭터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주인공은 누구나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많이 그렸는데 그중 가장 천진난만하고 단순하게 생긴 녀석이 현재의 주인공 아이입니다. 또 어찌 보면 잔인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니만큼 표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랑말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몹시 기괴해 보이거든요. 그냥 평면적인 종이인형처럼 표현해서 그런 불편한 느낌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책을 낸 뒤 느낌이 어땠나요?

처음 책이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난해하고 어렵다, 단순하고 명쾌하다, 무서워서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가 없다, 코믹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삶에 지쳐 있었는데 많은 힘이 됐다 등등. 가지각색이었었는데 첫 책을 낸 작가로서 제 책이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된다는 게 흥미롭고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부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느닷없이 고비가 닥치는 날이 온다면 《조랑말과 나》속의 곳곳한 아이와 조랑말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으면 합니다.



애니메이션 《My Pony》의 스토리보드

평론가의 책 이야기_ 시인·그림책 작가 이상희 님의 서평

살다가 느닷없이 고비가 닥치는 날이 온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책 한 권 읽기’는 특히 성과가 미미했던, 지난해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 읽다가 만 책이 거처 곳곳에 탐을 이룬 채 갈증과 허기에 속 쓰리던 참의 그 무지막지 졸렬하고 창대한 처방은 서너 번쯤 영혼의 위장을 기름지게 해주었으나, 양가 집안 어른들의 동시 다발 응급 사태로 중단되고 말았다. 삶의 여정이 끝나가는 이, 느닷없는 사고로 몸져누운 이, 읽던 책을 덮는 독자, 다시 길 떠나는 여행자...

독서와 인생과 여행의 공통점은 출발과 여정과 도착에 대한 메타포 외에

도 수없이 겹치고 겹친다. 알베르토 망구엘이 ‘은유가 된 독자 : 여행자, 은둔자, 책벌레’에서 얘기한 바 단테의 인생과 독서와 그 저작 ‘신곡’처럼 긴밀하고도 돈독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은유하고 펼쳐 보이는 것이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새 책을 펼치듯 한 해 분량 여정을 다시 길 떠나는 일이다. 그림책 《조랑말과 나》의 주인공도 길을 떠난다. ‘나에게는 조랑말이 하나 있어요. / 나는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라고 주인공이 소개하고 인사하는 첫 장면은 아이와 조랑말의 두상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얼핏 부담스럽거나 유치하게 여겨지지만, 이들이 길 떠나기 전의 여행자답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처럼 무결점의 완벽한 존재로서 오직 여정에 대한

독자의 책 이야기_ 블로거 '마녀키키' 이수영 님의 블로그 서평

이 그림책이 특별히 내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



2018년 새해가 열리면 곧장 글을 쓰리라 마음먹었던 그림책이 하나 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작심삼일이 될지 언정 이런저런 계획이란 걸 세우기 마련이다. 해마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나도 나름대로 새 다이어리나 작은 수첩을 장만해서 간단하게나마 '올해 할 일'을 적어보곤 했다. 올핸 그나마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 담은 작은 꿈이 있기에 거기에 닿기 위한 노력들을 몇 가지 꼽아보았다. 그러다 생각난 책이 딱 이 책, 바로 《조랑말과 나》.

홍그림 작가의 《조랑말과 나》를 처음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유튜브다. 2017년 봄,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진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에 참여하였다. 북트레일러는 영화 예고편을 뜻하는 무비트레일러와 비슷한 개념으로 '책 예고편'인 셈이다. 보통 트레일러는 결정적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다 보여주면 영화를 안 볼 테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북트레일러도 이야기의 절정에서 끝내는 형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북트레일러 제작 교육을 받으며 이런 저런 동영상 검색해보니 그림책 트레일러의 경우는 전체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을 펴낸 이야기꽃출판사는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이라고 제목 붙여 제법 여러 권의 그림책들을 작가가 직접 낭독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검색하면 이야기꽃출판사 그림책 영상을 여러 편 감상할 수 있다.) 참고하려고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 두 아이들이 나를 따라서 보더니 너무나 좋아했다. 특히 둘째 녀석이!

잠깐 판소리 하나 하자면, 내가 이 그림책을 보고 가장 먼저 인상적이었던 게 작가의 이름. 그림처럼 예쁜 아이이길 소망하여 지은 둘째아이의 태명 '그림이'와 같기 때문이다. 물론 본명이 따로 있지만 큰

애 이름이랑 발음이 비슷해서(작명실패ㅠㅠ) 나는 두 아이가 같이 있을 때 일부러 구별하려고 더더 "그림아~"라고 부른다.

서론이 넘나 길었다. 어쨌든 우리는 유튜브로 이 그림책 영상을 매일같이 보았다. 글이 간결하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서 동시 같은 느낌을 주니 아이들은 금세 외워 따라했다.

나에게는 조랑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가다 보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뽕!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조랑말은.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화합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글만 보면 오롯한 느낌을 모르니까 말이다.

'나'는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상한 녀석들을 만난다. (그 이상한 녀석들이 누구인지는 그림으로 봐야 제 맛.) 그럴 때마다 '나'는 망가진 조랑말을 이리저리 고쳐준다. 없는 솜씨로도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비록 그리하여 고쳐진 조랑말의 모습이 원래 모습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랑말처럼 보이긴 한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여 조랑말의 마지막 모습은 봉대가 칭칭 감겨져 있고,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역력하다. 심지어 다리를 어떻게 이어 붙였기에 두 발로 서서 걷기까지 한다. '나'의 얼굴에도 작은 반창고 하나가 장식처럼! ㅎㅎ

도대체 조랑말이 뭐라고 이 아이는 이토록 애지중지하며 망가진, 심지어 거의 해체에 가깝게 돼버린 조랑말을 다시 고쳐주는 걸까. 나에게도 이런 소중

한 조랑말이 있을까. 늘 나와 함께하고, 누군가 망가뜨려버리는, 그러나 다시 이어붙이는 조랑말.

나는 어려서부터 딱히 되고 싶었던 게 없었다. 장래희망을 적어서 내야할 때도 부모님이 입력해 준 직업을 적어서 냈고, 몇 번의 되풀이 끝에 마치 그것이 정말로 내가 바라는 장래희망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다. 마흔이 넘은 지금도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한다. (마음이 아직도 질풍노도사춘기) 그래도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하고 싶은 일도 생겼다.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조랑말이, 나와 조랑말이 바라보고 가야할 길이 생겼다. 새해를 맞으며 이 그림책이 특별히 내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내 조랑말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망가지기도 하고, 곧장 고치기도 했지만 한참 동안 창고에 처박아 놓기도 했었으며, 가끔은 얼룩말로 바뀌치기도 당했다. 그래도 다시금 조랑말은 내 곁에 와 있었다. 물론 처음 모습 그대로의 조랑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조랑말이 내 조랑말이 아니라 우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긴 세월 지나오며 여러 형태로 변형되었을지라도 그 조랑말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조랑말이다. 물론 올해도 내 조랑말은 다른 모습으로 바뀔 테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그래도 나는 이 녀석과 함께 올 한 해를 깨끗하게 걸어가리라.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겠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겠지만 나에게겐 조랑말이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연출이다.

구름도 새도 저마다 제 자리에서 온전히 날아다니는 맑은 날, 아이와 조랑말은 걷기 시작한다. 그런데 난데없이 권총 강도가 나타나 대뜸 조랑말을 겨누고 쏜다. 아이는 씩씩하고 담담하게 사태를 수습한다.

사지를 등성등성 꿰맨 조랑말과 함께 다시 나서자니 밤길, 이번에는 난데없이 비행접시가 나타나 조랑말을 해친다. 아이는 이번에도 산산조각 난 조랑말을 수습해 다시 길을 떠나지만 바닷길에서는 악어가, 밤길에서는 귀신이 조랑말을 해친다.

'가다 보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가 동일하게 네 번 반복되는 이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의 텍스트는 단호하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조랑말은.' 앞장 선 조랑말

과 아이는 뺨에 상처가 났고 조랑말은 길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전진하고 있는 둘의 표정은 더욱 다부져 보인다.

얼핏 험령해 보이지만 장면 곳곳에 만만찮은 유머가 탑재된 이 그림책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접고 그림책 동네로 건너온 홍그림이 5년 가까이 작업한 첫 작품이다. 새로운 길을 걷는 자기 투지와 이상을, 입을 한 일 차로 꼭 다문 채 전진하는 아이와 조랑말 모습으로 투사하고 있다.

새해의 여정에도 '이상한 녀석'은 틀림없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거듭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랑말은 더욱 너털너털 상처투성이가 되겠지만, 독자이자 여행자인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길 위의 독서'도 다시 시도해볼까.

*이 글은 한국일보 '그림책, 세상을 그리다' 칼럼에 게재된 것을 재수록한 것입니다.

조랑말 탐구

조랑말은 조랑말?



어떤 언어들은 단 한 가지 뜻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말 그대로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하며 ‘저 세상’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요. 시나 소설, 동화, 영화, 그림책과 같은 예술 작품 속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조랑말과 나》의 ‘조랑말’도 그렇습니다. 이 책 속의 ‘조랑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조랑말은 어떤 동물?

말의 종류 가운데, 어깨 높이가 140cm 이하인 말들을 두루 조랑말이라 불러요. 영어로는 ‘포니 pony’라고 하지요. 세계 대부분의 지역마다 그 지역의 조랑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주조랑말이 있어요. 조랑말은 몸집은 작지만 튼튼하고 끈질긴데다가 성질이 온순해서 논밭을 갈거나 수레 끄는 일을 잘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달리는 승마에도 쓰입니다. 제주조랑말은 마릿수가 많이 남아 있질 않아서 천연기념물(제34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답니다.



제주 조랑말(왼쪽 / 출처:김장성)과 셔틀랜드 조랑말(오른쪽 / 출처:Public Domain Pictures.net)

조랑말은 조랑말?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조랑말은 분명 동물의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조랑말과 나》의 조랑말을 동물로만 본다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면지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 조랑말과 함께 책을 읽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일이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땡! 충을 맞고 산산조각 난 동물 조랑말이 깨매어 붙인다고 다시 살아날 리도 없지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만신창이가 된 조랑말이 벌떡 일어나 두 발로 서서 앞장서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 책 속의 조랑말은 동물 조랑말이긴 하지만 또한 동물 조랑말이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조랑말’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란 어떤 것을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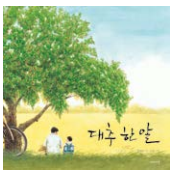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가령,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라는 가곡에서 ‘호수’는 언제든 그대가 배를 타고 노 저어 들어올 수 있는, 그대를 기다리는 ‘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쓴 비유이고, ‘그대 노 저어 오오’라는 표현은,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그대도 나를 사랑하여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 달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비유이지요.

이제 ‘비유’라는 개념을 생각하며 《조랑말과 나》를 다시 읽어보세요. 어려서부터 내가 소중히 여기며 함께 지내고 함께 자라온 조랑말, 그것은 무엇의 비유일까요? 그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나가는 들길과 밤길, 물속과 무서운 묘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에 느닷없이 나타나 내 소중한 조랑말을 망가뜨리는 충을 든 강도와 외계인과 악어와 유령은 대체 무엇일까요?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랑말’이 ‘나’의 ‘소중한 그 무엇’일 거라는 생각, 그리고 《조랑말과 나》는 그것과 함께 길을 가는 ‘나’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은 다 같이 할 수 있겠지요. 이야기 속의 아이가 지켜내는 조랑말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여러분의 ‘조랑말’은 무엇인가요?



함께 보면 좋을 책들_ 다른 의미를 읽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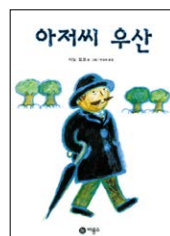
대추 한 알
장석주 시, 유리 그림,
이야기꽃

가을, 가지 끝에 달린 붉고 둥근 대추 한 알. 시인은 그것이 저절로 붉어지고 저 혼자 둥글어질 리 없다고 말합니다. 잎 나고 꽃 피고 지고, 가지 끝에 열린 작은 대추가 굵고 붉은 ‘대추 한 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추 한 알의 이야기는 단지 ‘대추 한 알’만의 이야기일까요?



제무시
임경섭, 평화로움은책

제무시는 트럭의 이름입니다. 이 그림책은 한국전쟁 때 제무시들이 양민을 학살하는 데에 동원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625호, 436호, 389호라 불리는 3대의 트럭. 부당한 임무를 맡없이 수행하던 제무시들 가운데, 625호가 어느 날 꿈쩍 않고 멈춰서 버립니다. 그러자 다른 두 트럭이 625호를 공격하고, 피하려던 625호는 벼랑으로 떨어져 부서져 버리지요. 옳지 않은 일에 동원된 제무시들, 그러다 양심에 가책을 느껴 멈춰선 제무시, 그 제무시를 공격하는 다른 제무시들…….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아저씨 우산
사노 요코, 비룡소

멋진 우산을 가진 아저씨가 있습니다. 아저씨는 우산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절대 펴지 않지요. 심지어 갑자기 내린 비에 어린아이가 달려와 좀 씌워 달라 간청을 해도요. 그러던 아저씨가 우산을 활짝 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저씨에게 우산처럼,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집착하는 무엇이 있을 겁니다. 그 집착이 그것을 그것답지 못하게 만들지요. 아저씨의 우산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수박이 먹고 싶으면
김장성 글, 유리 그림,
이야기꽃

수박이 먹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박을 사 먹으면 된다고요? 그럼, 그 수박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세상 모든 수박은 절로 나지 않습니다. 씨를 심어 싹을 내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김도 매 주고, 때맞춰 걸순도 숙아내 주어야 수박은 열매를 맺고 알이 굵어 집니다. 땀방울에 땀흘리는 수고를 하며, 줄무늬가 또렷해질 때까지 기다린 끝에야 수박은 무르익어 푸른빛을 반짝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수박’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어 읽어 보세요.